

어버이날 앞두고 가족과 짧은 만남 긴 이별

강제징용 이동권 할머니 별세

일본 사과 끝내 못받고 하늘로

양금덕 할머니와 평생 친구

미쓰비시 소송 원고 3명만 남아

“엄마를 보고 싶어도 못 본 지 3개월이 넘었는데...”

고(故) 이동권(90·사진) 할머니의 큰 딸 우정숙(74)씨는 카네이션도 못달아 드렸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광주 서구 구호전 장례식장에는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이동권 할머니의 빈소가 차려졌다. 강제징용 피해자로 75년간 울분의 세월을 보냈지만 이날 화려한 꽃에 둘러싸인 영정사진 속 이 할머니는 마치 소녀처럼 밝게 웃고 있었다. 입관식을 마치고 만난 딸 정숙씨는 “지

난 1월 말 어머니 상태가 좋지않아 병원으로 옮기셨을 때 뵙고 돌아가시기 전에야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 자녀들은 건강이 좋지않은 어머니가 항상 마음에 걸렸지만 ‘코로나 19’ 여파에 할머니가 입원 중인 요양병원 면회가 제한되면서 얼굴조차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자녀들은 지난달 28일 간암으로 투병 중인 할머니의 상태가 위독해졌다는 요양병원 측의 연락을 받고 3개월 만에 그리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위독했던 할머니는 자녀들을 만난 지 일주일만인 지난 6일 밤 11시 10분께 끝내 세상을 떠났다.

이 할머니와 초등학교 동창이자 함께 강제징용을 겪었던 양금덕(91) 할머니도 이날 빈소를 찾았다. 양 할머니는 “동련이와 나는 평생을 함께한 친구다. 학교에 손을 잡고 다닐 정도로 친했다”며 “추운 겨울이면 학교 길에 우리집에서 몸을 녹이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며 옛 추억을 떠올렸다.

이 할머니는 지난 1944년 5월 나주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인 교장의 권유로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고, 1945년 해방을 맞아 10월 귀국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주변의 굶지않은 시선과 세간의 평가에 할머니는 평생을 울분

속에 살아왔다. 이후 일본에서 진행된 소송에 참여했지만 이때에도 마스크와 선글라스, 모자로 얼굴을 가린 할머니는 일명 ‘마피아’라고 불렸다.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까 두렵고 주변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는 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민모임과 함께한 국내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마스크를 벗고 앞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 할머니가 참여한 미쓰비시 상대 국내 소송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8년 11월 확정됐지만 이 할머니는 끝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로부터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이로써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5명 가운데 양금덕·김성주·박해옥 할머니 등 3명만 남게됐다. 이 할머니는 고향인 나주로 돌아가 먼저 떠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만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통등 보며 코로나19 피로 달래세요

광주 서구 운천호수에 설치

광주 서구가 운천호수 산책로를 따라 코로나19 극복 응원을 담은 전통등(사진)을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전통등은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누적된 피로와 답답함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전통등에는 “코로나19 극복”,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등 코로나19 극복 응원을 위한 문구가 담겼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통등인 사각 청사초롱에 LED 조명을 넣어 야간에도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하고 있다.

한편, 광주의 도심속 명소인 운천호수는 서구를 대표하는 호수공원으로 수변을 따라 1km의 산책로가 있으며, 호수 가운데 인공섬과 섬을 잇는 목교와 음악 분수가 설치되는 등 시민들에게 수려한 수변경관을 제공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5·18민주묘지 40주년 맞이 7일 오후 광주 북구청 신입 공무원들과 청년간부회의 위원들이 5·18민주묘지 40주년을 맞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묘비를 닦으며 환경화 활동을 하고 있다. /최한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동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광주 동구가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건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건물주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건물주들의 좋은 뜻을 지원하고,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년 6월1일) 현재 건물소유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해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이며, 해당 영업장

면적의 재산세 산출액에 임대료 인하율을 곱한 금액으로 50% 한도 최고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3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초과 개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로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해 적용한다.

신청은 6월 1일부터 세무1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단, 해당 사업장이 고압오락장·유흥업·도박·사행성업종이거나 건물주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인 경우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호남대, 온라인 수업 1학기 전체로 확대

실험·실기 제한적 대면수업

호남대학교는 ‘코로나19’ 안정시까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1학기 전체로 확대 운영하되, 대면수업이 꼭 필요한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은 충분한 방역과 준비를 거쳐 18일부터 제한적 대면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호남대는 지난 6일 오후 학처장회의를 열고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8일까지로 예정됐던 비대면 온라인수업을 1학기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오는

18일부터 단과대별로 순차적 등교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한적 대면수업이 이뤄지는 18일부터는 등·하교시 정문만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전체 강의실에 대한 방역과 함께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학생들이 충분한 이격거리 유지할 수 있도록 책상을 재배치할 예정이다.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들이 별도로 머무를 수 있는 선별 관리실을 운영하고, 강의실 수시 환기 등을 통해 방역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채희종 기자 chae@

삼정초 통폐합 학부모 설문조사로 결정

광주교육청 상반기중 실시

3년만에 재추진된 광주 북구 두암동 삼정초등학교 통폐합(소규모학교 재구조화)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이르면 올 상반기중에 학부모 설문조사를 거쳐 통폐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북구 삼정초 학생들을 인근 두암초와 울곡초로 분산 배치하는 방식으로 학교 재구조화를 추진한 뒤, 삼정초 부지에 수영장과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갖춘 생활 SOC시설을 관할 북구청과 함께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전달 첫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삼정초 통폐합은 지난 2017년 추진됐다가 동문과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시 교육청과 광주 북구청은 5월 중 각각 1~2차례 학부모 설명회를 가진 뒤

상반기 안으로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학부모 50% 이상이 반대할 경우 통폐합을 포기하고 내부적으로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교육청의 기본입장이다. 특히 현재 1~6학년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학생 재배치나 학교통합을 논의하지 않다는 기본방침도 정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삼정초는 2006년 500명에 육박하던 학생수가 지난해 65명으로 10여년 사이에 급감했고 통합에 따른 과밀학급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며 “특히 세 학교간 통학거리도 길지 않아 통폐합의 여건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삼정초는 학생수 66명, 학급수 6학급의 ‘미니학교’이며 인근 울곡초와 두암초 역시 각각 358명 19학급, 447명 20학급인 소규모학교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교육청 체험활동 시간 감사편지 쓰기

전남교육청이 5월 가족의 달을 맞아 감사 편지쓰기를 실시한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해 조부모와 부모, 스승에게 사랑의 감사 편지를 쓰도록 했다. 또 우정사업본부, 국내 이버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편지쓰기 공모전을 안내해 참여

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들 역시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계기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부모와 이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심리적 환경을 조성하고 인성교육이 더욱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